

향촌사회의 문화 공간과 가사 향유

이힐한(경남대)

<목 차>

1. 서언
2. 16세기 향촌사회의 문화 공간
3. 문화공간에서의 가사 향유
4. 소결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亭)을 중심으로 향유된 가사를 통해 향촌사립의 문화 생활의 한 측면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세기 사람들이 향촌을 배경으로 창작·향유한 가사는 향촌에서의 문화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의 정치 현실과 자연으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향촌사회의 문화 생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향촌은 중앙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립세력이 그들 나름의 문화 생활을 이루어나갔다는 점에서 정치현실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촌 사립이 정을 중심으로 이루어낸 문화 생활의 양상을 가사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16세기 정(亭)을 중심으로 향유된 가사를 통해 향촌 사립의 문화 생활을 밝히기 위해 당시 향촌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여 문화와 문화 공간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둘째, 문화 공간의 성격을 지닌 정(亭)과 당(堂)의 예로 애일당, 독락당, 면양정, 식영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이 가지는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후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면양정과 식영정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범위를 축소시켰다.

셋째, 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진 가사 향유로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가사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통해 16세기 향촌 사림이 그들 나름으로 만든 공간에서의 생활 양상과 그 성격을 밝혔음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정(亭), 당(堂), 면양정, 식영정, 면양정가, 성산별곡, 문화 공간, 문화 활동, 문화 생활, 향촌 사회, 향촌 사림

1. 서언

16세기 중반 서울에서 향촌으로 돌아온 사람은 주변의 승경이나, 경치 등 그들의 생활을 시조나 가사로 지었다. 사림이 향촌생활을 통해 노래로 부른 시조는 당(堂)을 중심으로, 가사는 정(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정(亭)을 중심으로 향유된 가사를 통해 향촌사림의 문화생활의 한 측면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16세기 사림의 향촌 생활을 강호와 속세, 정치현실과 자연으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고 이러한 가사들을 모두 강호 가사로 포함시켜 왔다. 그리고 가사 연구에서 강호 생활을 노래한 것은 일관되게 강호가사 혹은 강호 한정가사라고 일컬어 왔다. 강호 한정에서 강호(江湖)란 강과 호수를 말하는데, 세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은자나 시인·묵객들이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문혀 생활하던 곳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정에 대한 시골의 뜻으로 쓰여 온 것이다. 한정(閑靜)은 한가로운 정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으로 돌아와 지낼 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주객

일체가 된 생활이 문학으로 표현된 것을 강호한정가사라 보았다. 조운제는 강호가도를 조선조에 들어와 자연미를 노래한 시가라고 규정하고, 그 형성원인을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이라 하였다. 결국, 지금까지 강호가도는 조선 시대 문화 환경의 의미로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 그런 까닭에 선행 연구에서는 가사를 통한 향촌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6세기 사람들이 향촌을 배경으로 창작·향유한 가사는 향촌에서의 문화생활을 노래한 것인데, 정치 현실과 자연으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는 그 향촌 문화생활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향촌은 중앙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람 세력이 그들 나름의 문화생활을 이루어 나갔다는 점에서 정치 현실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촌 사람이 정(亭)을 중심으로 이루어간 문화생활의 양상을 가사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16세기 정(亭)을 중심으로 향유된 가사를 통해 향촌 사람의 문화생활을 살피는 데 있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 16세기 향촌 사회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문화의 개념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설정한 16세기 향촌 사회의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공간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亭)이 향촌 사람의 문화 공간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문화 공간에서의 가사 향유를 통해서 향촌 사람의 문화생활 양상을 고찰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2. 16세기 향촌사회의 문화 공간

1) 문화 공간의 개념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기가 오늘날의 문화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시대이므로 동양적 의미에서의 문화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문(文)의 의미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1)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4), 130~141면.

전범을 가리키는 것이며, 화(化)는 문(文)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문화란 문(文)으로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문치교화(文治敎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에서의 문화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하여, 동양에서 말하는 문화란 문치교화로써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화의 개념이 문을 이용한 가르침이라면, 언어활동이나 문학 활동을 통한 가르침도 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글이나 시를 짓는 것도 문화 활동의 한 양상으로 설명된다. 오늘날의 문화 개념이 이런 문화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이전의 문화개념이므로 본고를 진행하는 데 적용시켜 서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16세기 조선 사회의 문화에 대한 개념은 문치교화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로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의 인간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에 사림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향촌에 들어서는 당(堂)과 정(亭)은 사림이 그들의 재지 기반인 향촌으로 돌아와서 세우게 된 것이다.²⁾ 향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벼슬생활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이루어왔다. 물론 이것은 서울출신으로 벼슬생활을 하는 이들과는 다르다. 사림들이 향촌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이 이어질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설립한 것을 정(亭), 당(堂)으로 볼 수 있다. 사림의 향촌 생활은 향촌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향촌민을 교화하고 자제와 후학을 양성하고 자신들의 학문을 닦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설립된 당(堂)과 정(亭)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향촌에서 사림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공부를 중심으로 한 공간은 당(堂), 늘

2) 사림세력은 향촌사회에서 성리학적 교양과 실천을 통해 성장해 나온 계층으로 사장보다 경학에 치중하였고, 특히 경학의 기본 정신을 도덕적 명분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로 표방하고 나섰다. 그리고 왕도정치적 공도론에 입각한 나머지 언론활동을 통해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와 양민수탈을 고발하는 한편, 왕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계약을 요구하면서 사회·정치적 모순을 적절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이었다. 그 결과 연산군 이후 훈적 및 왕실세력에 의해 사림세력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대사회로 불리는 정치적 혼란이 전개되었다.

이를 위주로 하는 공간은 정(亭)이었다.³⁾ 정(亭)과 당(堂)이 세워지게 되는 위치에 있어서도 서울에서와 달리 향촌민들의 생산 현장과 가까운 곳이므로 향촌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서울에서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간단한 모옥(茅屋)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향촌으로 돌아왔던 16세기는 서울에서의 루(樓), 각(閣), 당(堂), 정(亭), 대(臺) 등의 설립보다 향촌에서의 설립이 많았다.⁴⁾ 결국, 향촌에 지어진 당(堂)과 정(亭)은 서울에서 경치를 조망, 연회를 베푸는 등의 놀이 기능만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향촌 사회에서 정(亭)이나 당(堂)은 학문적, 문화적 활동의 장소로 유교적인 교육과 문화 및 향촌 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모임과 논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서울에서의 당(堂), 정(亭)과는 그 기능이 달라졌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당(堂)과 정(亭)을 사람들의 문화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정(亭)을 문화 공간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면양 송순과 송강 정철을 들 수 있다. 송순은 담양에 돌아와 면양정에서, 정철은 성산에서 임억령의 식영정에서 문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문화활동의 일부분이 시가활동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들은 가사를 창작하였다. 가사가 개인적인 삶을 노래하는 갈래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를 통하여 면양정, 식영정에서의 문화생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결국 향촌에 정이라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문화 활동을 이루어 가는 문화생활 양상을 가사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 공간 : 정(亭)

송순은 32세(중종 19년)에 면양정 기지를 사들이고 9년 뒤인 41세(중종 28년) 되던 해에 면양정을 지었다.⁵⁾ 이후 다시 벼슬길에 나갔다가 58세(명종 5

3) 정(亭)과 당(堂)이 놀이를 위한 공간과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한 것은 처음 건축 의도에 맞춘 것이며, 또한 주로 정(亭)에서는 놀이를, 당(堂)에서는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亭)에서 놀이만 하고, 당(堂)에서는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명확한 선을 그어 정(亭)은 놀이 공간, 당(堂)은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이라고 구분하지는 않겠다.

4) 임의제, 『조선시대 서울 누정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3호(1994).

5) "갑신년에 비로소 상덕리 서쪽 한 마장쯤 되는 곳에 있는 면양정의 터를 사들였는데 즉 기준의 새 집 동산 서북쪽 언덕 위에 있는 것이다. 앞서 광씨가 여기 살 때 꿈에 금어옥대의 선비가 그 터 위로 줄지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꿈의 소유된 후로 사대부들이 많이 놀게 되었다."

년에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귀양에서 풀려난 후 60세(명종 7년)에 담양부사로 온 오겸이 면양정이 많이 남아 고칠 것을 권하자 개축하게 되었다. 이 때 낙성식에 참여한 기대승(1527~1572)이 기(記)를 쓰고 임제(1549~1587)가 부(賦)를 짓고, 김인후(1510~1560)와 고경명(1533~1592), 임억령(1469~1568), 박순(1523~1589)이 <俛仰亭三十詠>을 지었다. 송순이 죽한 16년 후에 임진왜란으로 면양정이 불타버렸는데 이를 후손들이 힘을 모아 1654년에 다시 세우니 이것이 지금 전해 내려오는 면양정으로 볼 수 있다.

면양정은 처음에는 초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면양집』 권 1'俛仰亭司諫羅歸後作'의 "백 리의 여러 산이 평야를 둘러싸고/시냇물 흐르는 곳에 띠집이 세워졌네."에 나타나 있으며 송순의 단가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한간 지어내니"하는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김인후의 <俛仰亭記>에 송순의 면양정 생활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복건에 간편한 옷차림으로 누정에 올라 기대어 있노라면 허공에 치민 산과 멀리 흘러가는 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한가롭게 노니는 새들과 짐승들, 물고기와 솔개들이 어지러이 다가와서 나에게 흥취거리를 제공한다. 이 때 지팡이 짚고 나막신 끌고서 한가롭게 뜰을 거닐면 비취빛 안개가 절로 멈추고, 시원한 바람이 때마침 불어와서 소나무, 전나무가 너울거리며 바람소리 보내고 바람결에 놀란 붉은 꽃잎과 초록잎 식물들의 향기가 사위에 자욱하니 유유히 육체를 잊고 의기양양하게 조물주와 더불어 노닐기를 일찍이 다함이 없이 하도다.⁶⁾

선선이 살만한 정(亭)인 면양정은 주인 송순을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교류한 장소이다. 먼저 문집의 행적조와 행장을 통하여 송순과 교류한 인물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전후 서로 사귀어 갈리지 않았던 사람은 신광현으로부터 이황, 성수침, 나세

6) 『高峯集』卷二 <俛仰亭記>, 81~83면. "幅巾短褐 徒倚於欄檻之上則山之高 水之遠 雲之浮 鳥獸魚鳶之遊遊 舉熙熙然來供吾興 而扶藜蹠履 從容於階除之下 則琴煙自留 清風時至 松檜蔌蔌有聲 而粉紅駭綠 香氣掩冉 施施乎與形骸相忘 于于乎與造物者遊 而未始有極."

찬 등 과거에 오른 여러 현인들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들과는 진작부터 다 도의로써 서로 기약한 바 있었다. …후배 명사로는 김인후, 임형수, 노진, 박순, 고경명, 정철 이하 이십여 명인데 모두 출입하여 존경하고 따랐다. 청송 성수침이 일찍이 이를 탄복하여 말하기를 이는 이른바 천하에 천거된 현사들로 모두 공의 문하에 있다고 하였다.⁷⁾

조부께서는 청송 성수침, 퇴계 이황, 시호 문순, 놀재 선생의 동생인 육봉 박우와 도의의 사림을 가졌다. 하서 김인후, 낙촌 신광환, 울곡 이이, 고봉 기대승 등 일대의 명사 이십여 명이 어울려 공의 문하에 출입했는데 청송이 말하기를 이는 이른바 천하에서 천거된 현사들로 모두 공의 문하에 있다고 하였다.⁸⁾

면양정과 하루 안의 거리상에 석천의 식영정, 송강의 송강정, 사촌의 환벽당, 김성원의 서하당 등이 있으면서 이들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시작 활동이 활발하였고, 이곳에 있던 당대의 명사들을 찾아 많은 후진들이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면양정을 드나들었던 인물 중 박순(1523~1589)은 송순의 스승이었던 박상의 아우 박우의 아들이었고, 정만중은 송순과 함께 박상의 담양부사 시절 문하생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정철도 송순의 문하생이면서 임억령, 김인후, 기대승에게서 공부하였다. 송순은 면양정을 중심으로 사제관계, 벗, 친인척의 교분으로 주위의 정(亭)과 당(堂)을 내왕하여 교류하였다.

송순이 과거에 급제한 지 61년을 맞이한 잔치를 면양정에서 베풀었는데 송강 정철, 고봉 고경명, 고봉 기대승, 백호 임제 등과 전라도의 각 고을 수령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송순은 호가 기촌이니 20세에 등제하여 문장의 표망이 세상의 으뜸이 되었고 네 조정을 두루 섭렵고 늙어서는 벼슬에서 물러나 임하에서 살았다. 정자

7) 『侂仰集』 卷五 <行狀>, 18면. “前後所交遊不替者 自企齋光漢以至退溪聽松齋龍門諸賢 既皆道義相期 …後進名流 河西錦湖玉溪思庵高峯霽峰松江以下二十餘公 舉出入尊服 聽松嘗爲之歎曰 此所謂天下桃李 盡在公門者也.”

8) 『侂仰集』 卷四 <行蹟>, 26면. “府君與成聽松 諱守琛李退溪 諱滉 諱文純 朴六峯 諱祐 訥齋先生之弟 爲道義之交 而如金河西 諱麟厚 諱文靖 申駱村 諱光漢 諱文簡 李栗谷 諱珥 諱文成 奇高峯諱大升 諱文憲 一代名流二十餘人 并出入門下 聽松曰 此所謂天下桃李盡在公門者也.”

를 집 뜰 언덕 위에 지어 이름을 면양정이라 하였으니 대개 우주를 굽어보고 올려다본다는 뜻이다. 임금을 사랑하는 성심이 작품에 많이 나타나 있다. 등제한 지 환갑이 되는 날 면양정 위에서 잔치를 베풀되 규모와 절차를 처음 과거 오를 때와 같이 하니 일도가 공경하여 바라보았다. 술자리가 익자 수찬 정철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노인의 영광을 위하여 대나무 등우리에 태워 매고 한 바퀴를 돌자"하였다. 드디어 헌납 고경명과 교리 기대승, 정언 임제로 더불어 부엌하여 등우리에 태워서 매고 다니니 고을 원과 사방에서 모이어 구경하는 사람이 모두 찬탄하여 명예로이 여겼다. 이는 실로 전고 없던 바의 성사이다.⁹⁾

송순의 등재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로, 그 동안 송순과의 교류가 있었던 많은 문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어울리고 있다. 면양정은 송순이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며 도의를 강론하기도 하고, 한가로이 쉬기도 하고, 이웃 절의 중과 함께 바둑을 두기도 했으며, 연회나 잔치를 베풀기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선생은 81세인데도 평소 초하루, 보름을 거르는 일이 없었고 조상의 기일은 80~90세가 되어서도 조금도 게으름 없이 받아들였다. 정력이 쇠하지 않아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바둑 두기와 활쏘기, 책 보기, 글씨 쓰기는 젊었을 때나 다름이 없었다. 날마다 가마를 타고 면양정을 오고 가고 했는데, 산 중 늙은이들과 시냇가 버들에 같이 앉아 이야기하며 웃곤 했다.¹⁰⁾

많은 문인들이 면양정을 드나들면서 시가활동을 벌여 면양정에 차운한 시가 여러 편이며, 면양정 주인이 죽은 이후에도 면양정을 찾은 이들이 남긴 시 또한 여러 수이다. 그러므로 면양정은 주인인 송순에게 뿐만 아니라 호남일대 여러 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영정은 1560년에 서하당 김성원이 세운 것으로 그의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한 것이었다. 임석천은 김성원의 청으로 <息影亭記>를 쓰면서 장자

9) 『潭陽府邑誌』, <何輿倪仰亭>. 宋純 號企村 二十登第 文章標望爲世所宗 歷事四朝 退老林下 作亭 家園岸上 名曰倪仰亭 蓋倪仰 宇宙之意也 其愛君之誠 多形於篇詠 登第周甲日 設宴于倪仰亭上 如新恩時 一道饗觀 酒半修撰鄭澈曰 吾儕爲此老 荷竹輿可乎 遂與獻納高敬命 校理奇大升 正言林悌 掖上扶輿而下 邑宰及四隣來會者隨之 人皆嗟嘆而榮之 此實前古所未有之盛事也.

10) 『倪仰集』 卷五 <附錄>, 「年譜」.

의 고사를 빌어와 정자의 이름을 삼으면서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식영이란 말은 '그림자를 쉬게 함', 또는 '그림자를 끊음'이란 의미로 『장자(莊子)』의 「제물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식영정을 시작으로 소쇄원, 환벽당, 서하당과 함께 성산가단이 이루어졌으며, 임석천을 중심으로 김성원, 고경명, 정철 등이 시문을 주고받아 이들을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렀다.

또 일찍이 작은 한 정자를 지어 석천에게 주고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따르며 강론하고 토론하며 오고 가고 했는데, 즉 식영정이 이것이다. 백세 뒤에 그 풍모를 듣는다면 늙름한 기개에 뽀름을 느낄 것이다.¹¹⁾

경신년 공이 36세 때 일찍이 말하길 소성한 젊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여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창평 성산에다 서하당을 짓고 생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이때부터 임천에 한가히 놀면서 독서에 열중하고 때 가는 줄을 몰랐다. 서하 김인후로 스승을 삼고 송강 정철,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등의 제현과 도의로써 사귀고 형제와 같이 화목하게 지내며 왕래가 끊이질 않았다. 송강 정철이 더욱 공경했는데 매양 하장(霞丈)이라고 불렀다.¹²⁾

식영정 역시 면양정과 마찬가지로 호남일대의 문인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성산별곡>, <식영정제영> 20수를 비롯한 많은 시가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3. 문화공간에서의 가사 향유

1) <면양정가>

<면양정가>는 면양정의 원근의 풍경으로 시작하여, 정자주변의 모습을

11) 『棲霞先生文集』 <行狀>. “又嘗構小一亭 推與石川 晨夕陪從 講討交至 卽息影亭 是已 百世之下聞其風者覺凜然起懦也.”

12) 『棲霞先生文集』 <行狀>.

열거하면서 정자가 자리잡은 공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원근의 조망권은 “무등산 혼활기의 동쪽→제월봉→무변대야→일곱구비→너르바회→정자”로 이어진다. 정자에 다다른 후에는 정자의 가까운 경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无等山 혼활기되히 동(東)다히로 버더이서
 멀리 세쳐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 大野의 므슴짐 흐노라
 일곱구비 혼디 움쳐 문득문득 버터논듯
 가온대 구비는 굼긋든 늘근농이
 선증을 窸찌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松竹을 해혀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튼 靑鶴이
 千里를 가리라 두나나리 버터논듯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어지는 조망은 면양정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자연경관을 형상화시켜 나타내었다. 송순이 바라보는 눈길의 움직임에 따라 정자 주변을 바라보면, “물→기러기→산→구름과 안개→하늘→노을”로 이어진다.

玉泉山 龍泉山 느린 물히
 亭子얹 너븐들히 兀兀히 퍼진드시
 넘쳐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지마나
 雙龍이 뒤트논듯 긴김을 치펏논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슴일 비얏바
 닷논듯 썩로논듯 밤늦즈로 흐르논듯
 므조친 沙汀은 눈긋치 퍼젓거든
 어즈러운 기력기느 므스겨술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化을 사이두고 우러곰 좃니논노
 너븐길 밧기오 진하늘 아리두르고
 썩즌거슨 모힌가 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듯 느즌듯 굸논듯 닛논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논 양훤야
 하늘도 짓치아녀 옷독이 씻는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龜山 夢仙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에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근짓도 하도할샤
 흰구름 브흰煙霞 프르니는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집을 삼아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썬나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토락 지트락
 斜陽과 서거지어 細雨조츠 뿌리는다

정자 앞을 흐르는 물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물가를 날고 있는 기러기에게
 로 눈이 옮겨가고, 기러기에서 눈을 돌리니 우뚝하게 솟아 있는 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우뚝이 서 있는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에 걸쳐 있
 는 구름과 안개가 보이고 산에서 하늘까지 뻗어간 시선은 저 멀리 넓은 들의
 노을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경에 대한 조망은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연스럽게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결되
 어 있다. 원경에 이어서 근경의 자연경관에 대한 표현은 면양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웅장하고 광활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근경은 역동적으로 흘러가
 는 물로 시작하여 한가로운 기러기, 하늘까지 뻗어 있는 산, 산에 둘러 있는
 구름과 안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송순은 면양정이라는 정자에서만 활동
 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경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시가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면양정가>에서 송순이 노래한 면양정과
 주변 경물을 모두 문화 활동을 이루어낸 문화공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물,
 기러기, 산, 구름과 안개 등은 면양정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정(亭) 주변의
 경물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물 하나 하나가 문화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
 는 것이다.

송순이 개인의 공간으로 마련한 정(亭)에서의 문화생활 양상은 계절의 변
 화와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藍輿를 비야타고 술아리 구분길노
 오며가며 흐는적의
 綠楊의 우는黃鶯 嬌態겨워 흐는괴야
 나모새 즈즈지어 樹陰이 얼린적의
 百尺 欄干의 긴조으름 내여퍼니
 水面 涼風이야 긋칠줄 모르는가
 즈서리 빠진후의 산(山)빛치 금슈(錦繡)로다
 黃雲은 쓰엇지 萬頃의 편거지요
 漁笛도 흥을계워 들롤쓰라 브닌다
 草木 다진후의 江山이 밍몰커놀
 造物리 현스흐야 氷雪노 썩며내니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眼底에 버러세라
 乾坤도 가음열샤 간대마다 경이로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 동안 발길이 뜸했던 정(亭)을 찾아가는데 가마를 재촉하며 서두르고 있다. 여름이면 요란스런 피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면양정 마루에 누워 낮잠을 즐기며 찾아오는 객들과 교유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또한 가을이 되니 산 여기 저기에 단풍이 들고, 들뜬에 곡식도 누렇게 익어 가니 풍년을 기원해 보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어 풀과 나무가 다 진 후 강산이 눈 속에 묻히니, 눈 덮인 들뜬과 산이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감탄하고 있다.

송순은 면양정에서 가만히 자연을 감상하고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니것도 보려히고 저것도 드르려코 / 바람도 혀려히고 들도 마즈려코”라고 하여 적극적이고 동적으로 생활하는 송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되히 안즈보고 저되히 거러보니”라고 하여 적극적이고 바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다만 흐 청려장이 다 뵈 되어 가노미라”에서는 적극적이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청려장이 다 닳았다고 하였다.

면양정은 송순이 바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송순의 면양정 생활은 문화 공간에 동화되고자 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면양정가>는 송순이 면양정과 주변의 자연 경물을 문화 공간으로 삼아 자신의 생활을 노래했

다는 것이 가장 큰 중심축을 이룬다. 송순은 자신이 만든 문화 공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하며, 그러한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성산별곡>

성산 주인이 인간 세상사에도 좋은 일이 많지만, 한 강산을 알면 알수록 더욱 좋아져 적막 산중에 들어와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손님이 대로 만든 평상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정(亭)을 차근차근히 바라보는 것으로, 가사가 시작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손님이 ‘문화공간’인 정(亭)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사의 서두가 시작되고 있다.

松根을 다시쓸고 竹床의 자리보아
저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보니
天邊의 편논구름 瑞石을 집을사마
나논듯 드는양이 主人과 엇더흔고
滄溪 흰물결이 亭子알피 둘러시니

죽상에서 출발한 손님의 시선은 멀리 서석산으로부터 정(亭) 앞으로 둘러 흐르고 있는 창계로 옮겨져 식영정으로 이어진다. 시선의 이동이 <면양정가>처럼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원경의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웅장하고 광활한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어서 식영정 주변의 근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면양정가>에 비해 공간이 협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즉 시선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 밖의 광활한 공간을 정자 안으로 끌어 들여온다거나 역으로 정자나, 정자에 있는 사람이 그 광대한 공간 속으로 융입해 가는 심미감을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면양정의 주인 입장인 송순과 손님으로 식영정을 찾아든 정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산별곡>에도 <면양정가>와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객이 성산 주인이 머무르고 있는 정(亭)을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성산 주인은 미투리에 대나무 지팡이 차림으로 문화 공간이 식영정으로 향하는 길목부터 시내, 방초, 돌 등을 친구 삼아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셋째, 주인과 객이 구체적으로 정(亭)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봄날 정(亭)에 앉아 벗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시작을 하기도 한다. 또 낮잠에서 깨어 못의 고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시냇가를 거닐며 바위 위에 앉아서도 보고 낚시터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나가고, 가을 밤이면 달구경을 하기도 산다. 성산 주인은 이런 문화생활들을 통해 세상사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산 주인이 산 속에는 벗이 없으니 책을 벗 삼아 지내고 있다. 솔로써 근심을 털어 내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니 주인인지 객인지 잊어버리고 흥에 취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으로 <성산별곡>에 나타난 성산 주인과 객의 삶을 통해서 식영정이 문화생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에서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문화공간으로 확인되어진 정(亭)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본 연구는 정(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에서의 가사 향유를 살펴보기 위해 16세기 향촌 사회의 문화와 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문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면양정과 식영정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고 문화 공간인 면양정과 식영정에서 향유되어진 가사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을 통해서 16세기의 향촌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이루어냈는지 검토하였다.

16세기 문화의 개념으로 문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범을 말하고, 화는 문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문화란 문으로 다스리고 가르친다는 문치교화의 의미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로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의 인간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 규정하였다. 언어활

동이나 문학 활동도 문을 통한 가르침이므로 글이나 시를 짓는 행위까지 문화 활동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16세기의 문화 공간으로 정의 내렸다. 16세기에 재지적 기반을 향촌에 마련해 둔 사림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향촌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에서처럼 문화생활을 하던 문화 공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亭), 당(堂) 등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16세기 이전 당(堂)은 주로 남향으로 정원의 경관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 잔치, 시회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쓰였으나 이 시기에는 가르침을 하는 장소의 역할은 주로 당(堂)이, 잔치나 시회 등의 개최는 주로 정(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송순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노년의 대부분을 면양정에서 보냈는데 호남 일대의 사람들은 면양정을 찾아들면서 시가활동을 벌이는 등의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이러한 생활 역시 문화 활동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식영정 역시 서하당, 환벽당, 소쇄원과 함께 사제 관계나 벗, 친인적으로 구성된 인물들이 드나들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16세기 정(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에서의 가사 향유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논의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17·18세기의 임진란 이후 달라진 상황에서의 정(亭)은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문화생활의 한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의 대상을 가사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로까지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경명, 『제봉집』, 한국문집총간 42(민족문화추진회, 1989)
——, 『국역 제봉집』 1~4(민족문화추진회, 1989)
기대승, 『고봉집』, 한국문집총간 40(민족문화추진회, 1989)
김광조,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7)
김기도, 『송순의 시가 연구』(원광대 석사논문, 1984)
김동옥, 『한국가요의 연구』(형설출판사, 1980)
김동주, 「전남지방의 누정 조사 보고 1」, 『호남문화연구』 제14호(호남문화연구
 구소, 1985)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 연구』(국학자료원, 1998)
김성원, 『서하당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528(경인문화사, 1993)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김종진, 「16세기 사림과 문학의 연구-기묘사림을 중심으로」(성대 박사논문, 1989)
김창원, 「16세기 사림의 강호시가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7)
류해춘, 「16·17세기 사대부가사 연구」(경북대 석사논문, 1985)
박연호, 「조선전기 사대부 교양에 관한 연구」(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3)
박준규 외, 『호남의 누정문학』 2·3(태학사, 2001)
박준규, 「성산의 식영정과 성산별곡」, 『국어국문학』 94(국어국문학회, 1985)
——,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제17호(호남문화연구소, 1987)
백인자, 「조선 전기 가사의 서정성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손오규, 「산수문학연구」(제주대출판부, 2000)
송순, 『면앙집』, 한국문집총간 26(민족문화추진회, 1988)
신경림 외, 『송강문학연구논총』(국학자료원, 1993)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시조의 흥치-흥취 구형 양상과 의미 연구」(한국학대
 학원 박사논문, 1995)
——,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박이정, 1997)
신영명, 『사대부시당의 연구』(국학자료원, 1996)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과정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이동영, 『조선조 영남 시가의 연구』(형설 출판사, 1984)

-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출판부, 1993)
- _____, 『증보사림과문학의 연구』 (월인, 2000)
- 이상보,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79)
- 이현보, 『(국역)농암선생문집』 (분강서원, 1986)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3, 10(아세아문화사, 1999)
- 임역령, 『석천집』 (여강출판사, 1989)
- 임의제, 「조선시대 서울 누정의 조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3(1994)
-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집문당, 1992)
- 정익섭, 『개고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 정재호,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연구」, 『현대문학』 통권 151(1967)
- _____, 「<면양정가>의 구조」,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8)
- 정 철, 『송강집』, 한국문집총간 40(민족문화추진회, 1989)
- _____, 『국역 송강집』 (송강유적보존회, 1988)
- 최강현, 『한국고전문학전집』 3(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 고영진, 「16세기 호남 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제3집(경상대남명학연구소, 1993)
-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미적 특질 연구」(이화여대 박사논문, 1995)
- 최상은, 「조선전기사대부가사의 미의식」(성균관대 박사논문, 1991)
- 최재남,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 _____, 「16-17세기 향촌사림의 시가문학」, 『한국시가연구』 9(한국시가학회, 2000)
- _____, 「사람의 생활문화로서의 시가활동」, 『고전문학연구』 별집 8(한국고전문학회, 2001)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77)

〈Abstract〉

On the Enjoyment of Gasa and Cultural Lives in the Hyangchon Society

Lee, hil h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one aspect of cultural life in Hyangchon Salim(ancient country village in Korea) through the Gasa enjoyed mainly in Jeong.

The Gasa was created and enjoyed by Salim(learned men in early Chosun dynasty) in the 16th century in the Hyangchon. But the dichotomous structure that separates the political reality from nature in the existing study may not correctly recognize the reality of cultural life in Hyangchon society.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political reality and nature come to the question in that Hyangchon was a space separated from the center and Salim manages their own cultural lif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spects of cultural life by Hyangchon Salim focusing on Jeong through Gasa <Myeonang Jeongga> and <Seongsan Byeolgok>.

Keywords : Jeong, Dang, Hyangchon society, Cultural life,
Cultural space, Myeonang Jeongga, Seongsan Byeolgok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